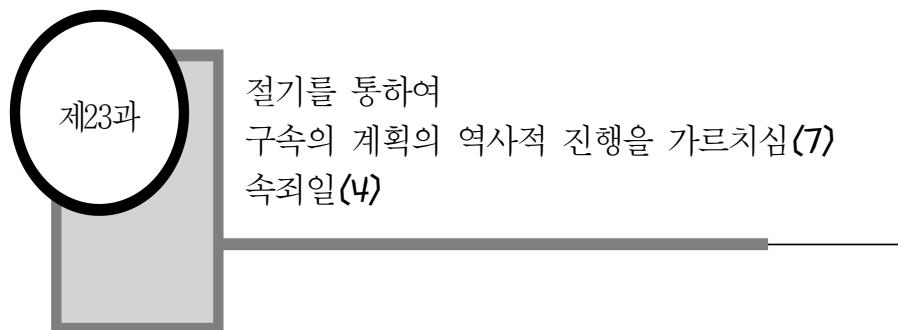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본다.



속죄일 (4) - 하늘 지성소 봉사

시작하는 말: 우리가 지금까지 참 성소가 어떤 것인지 연구하였다. 그것은 하늘 성소인데 또한 이 지상에 두신 그리스도의 교회도 포함되는 것임을 알았다. 주님은 승천하신 후 그때가 오기까지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봉사하셨는데 그 봉사의 시작은 유대인을 위한 70이례의 기간이 끝날 때였고 이제 하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는 것은 2,300 주야가 끝날 때인 것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극히 중요한 것인데 남은 무리가 이 일을 깨달음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 성소 봉사에서 속죄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참 성소 봉사에 속죄일이 정해져 있는 것을 표상하며 그 날은 곧 심판의 날이다.

[레 16:29,30]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칠월 곧 그 달 십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30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 이 날은 백성이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은 속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정결하다고 판결하시는 날이다.

[행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라 하니라.

[계 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 이상의 말씀들은 다 심판하실 날이 있으며 그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들이다.

2.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교회를 살펴 정결케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벧전 4:17]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딤전 3: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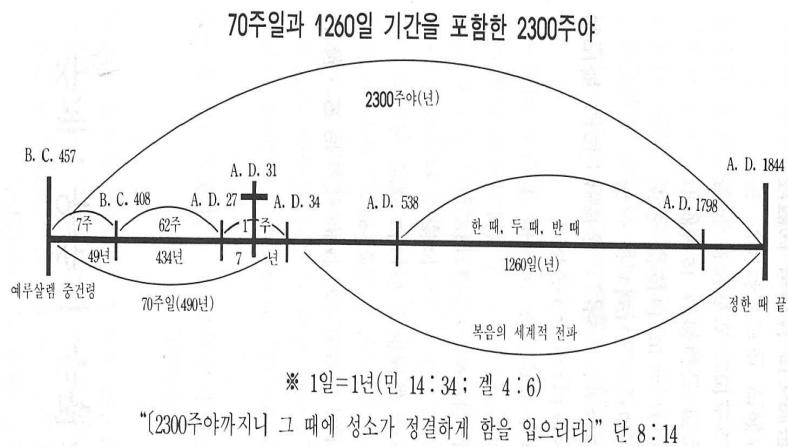
[겔 9:3-8]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떡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5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궁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6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7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8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훌로 있는지라 엎드리어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계 7:1-3]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불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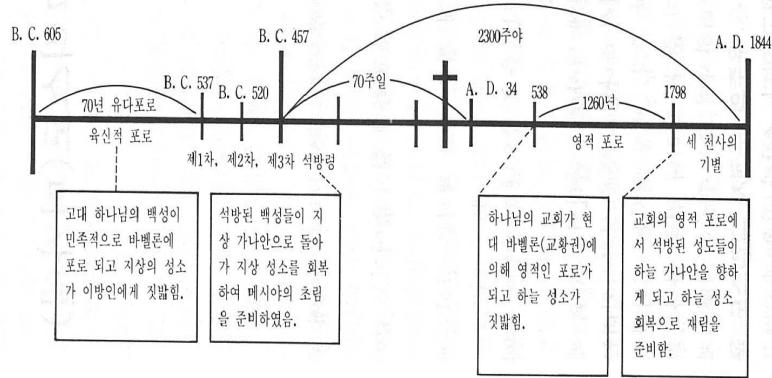
3. 이런 심판 곧 정결케 하는 심판의 날은 2,300 주야 끝에 있을 것인데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단 8:13,14]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 주야의 시작이 70 이례의 시작과 같은 때라는 사실은 지난과를 통하여 자세히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70 이례의 시작 곧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내린 기원전 457년부터 2,300년을 지내면 곧 기원 1844년이 된다. 그러므로 기원 1844년의 유대인의 속죄일(유대 종교력 7월 10일)인 양력 10월 22일에 예수께서는 지성소 봉사에 들어가신 것이다.



2300주야의 시작(B. C. 457)과 끝(A. D. 1844)의 동일성의 배경과 구속사적 의미



4.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에 들어가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 곧 심판하시는 사실은 예언적으로 여러 곳에 계시되어 있다.

[마 22:11]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마 25:31-33]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단 7:13,14]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 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라.

[단 7:9-12]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웃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이며 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1 그 때에 내가 그 큰 밀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12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 혼인 잔치 비우에서 임금이 손을 살피는 것이나, 양과 염소 이야기에서 두 무리를 분별하는 것은 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살피는 일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분별한 사실대로 집행하신다.

[마 16: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살후1:7-10]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5. 예수님의 나라와 관계되는 일에 대하여 성경은 세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라를 받는 것과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단 7: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라.

● 하나님께 나라를 받음.

[고전 15:24]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라를 다스림.

◉ ① 세 가지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 1) 나라를 받는 것: 이것은 심판하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 2) 나라를 바치는 것은 심판 곧 조사하는 심판이 끝나고 대제사장의 임무를 마치고 집행 심판의 때가 된 사실을 뜻하고 있다.
- 3)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시 110:1-7]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2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현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4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5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6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7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 ② 이 시편은 그리스도의 세 번의 나라와 관계된 것을 전부 요약하고 있는 시편이다.

6. 이 때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므로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다.

[계 14: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고후 2:17]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후 4:2-4]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궤垢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3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 ③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혼잡케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이다.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그것이 바벨론이다. 오늘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미 바벨론과 딸 바벨론이 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다.

[롬 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7.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선포한 바벨론의 내용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치고 있다.

[계 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4:11]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 10:6]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 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경배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고 생활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8. 결국 이 땅의 교회가 창조의 기념일로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제정해 주신 안식일을 버린 것이 창조주를 경배 않는 것이 되고 바벨론이 되게 된 주원인이다.

[겔 22:26]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시 74:3-9]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시오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4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훤히하며 자기 기를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5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6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엊었나이다.

[겔 20: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 그러므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늘 성소를 더럽힌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2,300주야 끝에 심판을 통하여 이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다.

9. 심판하실 때에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선포한 말을 듣고 순종하는 무리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심판으로 의롭다고 선포된 백성이요 그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이다.

[계 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

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 라오디게아(Laodivkeia)는 라오스(laov")와 디카이오스(divkaio")가 합쳐진 헬라 말인데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말이고, “디카이오스”는 “의롭다”는 말이다.

그런데 “디카이오스”는 법정에서 쓰는 말로서 재판장이 모든 심리와 사실을 끝내고 “의롭다”고 선고한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판의 결과로 의롭다고 선포된 백성의 교회라는 말이다.

10.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계명 중에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 유린하지 않고 보존하며 지키는 무리가 일어난 것인데 이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2300주야 끝에 심판 곧 성소 정결을 통하여 일어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남은 자손이다.

[계 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 심판하실 시간에 대한 기별을 듣고 깨달아 순종한 자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11. 심판으로 정결하여지는 것은 이미 공부한 세 가지 참 성소가 다 정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니엘 8장 10-13에 기록된 내용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은 성소가 회복되고, 타미드가 회복되며 진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단8:10-14]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불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물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 여기에는 세 가지 사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기록되었다. 1) 헐어버린 성소, 2) 매일의 봉사, 3) 땅에 던져진 진리이다. 이것 외에도 군대의 주재가 권세가 확립되는 것 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세 가지가 회복될 때 제절로 성취되는 것이다.

2300주야 끝에 성소정결 하는 일, 곧 심판하여 이런 사실을 밝히셨다. 하늘에 성소가

있는 것을 분명히 밝히심으로 성소를 회복하셨고, 예수께서 친히 하늘에 거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것을 밝히심으로 매일의 봉사가 회복되었다. 이런 진리를 밝히 드러내심으로 땅에 던져진 진리를 회복하셨다. 이 회복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행하는 무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또 성도들의 몸 성전도 정결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건강기별로 계시되었고, 진리가 회복되고 성도 몸 성전이 정결해짐으로 교회 성소가 정결하여지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다 성소정결 사업으로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벧전4:17)

12.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으로 예표가 되었는데, 그들은 세 번의 귀환 조서를 따라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성전 회복과 안식일 회복과 가정 정결을 이루어 나이갔다.

● 제 21과 5번을 참고하시라. (스 1:1-3, 6:13, 7:7 등)

[스 3:7-13] 아닥사스다 왕 칠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8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칠년 오월이라 9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오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11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12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13 조서하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같지이다.

[스 8:36]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 서편 총독들에게 부치매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새번역)

[느 13:1-13] 그 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3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4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

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6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삼십이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8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내어 던지고 9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10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11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쳐소에 세웠더니 12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13 내가 제사장 셀레먀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맛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벼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느 13:15-22]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17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19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20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21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22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 13:23-28] 그 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24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25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26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27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8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29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스 9:1-10:44 참고)

13.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도 2,300주야 끝에 하늘 성소를 깨달음으로 성전을 회복하였고 그 결과로 안식일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영적 바벨론에서 나온 남은 자손 곧 심판으로 의롭게 된 백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히 9:11-14]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놀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 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4. 지금은 속죄일 곧 심판 날의 성소 정결 행사 곧 심판으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밝히시고 바벨론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불러내는 시기이다.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을 향한 심판의 기간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 초청에 응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 의롭게 된 남은 자손에 속하기 때문이며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계 18:1-4]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쳐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렘 51:6]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사 48:20]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15.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곧 심판의 주로서 당신의 성소인 교회를 심판하여 정결케 하실 뿐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통하여 각 개인을 심판에 초청하였으며 동시에 역대의 모든 주의 백성이었던 자들도 심판으로 의롭게 된 백성인지를 확정하신다.

[요 5:24-29]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 3:16-18]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시 69:28]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계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롬 14:10-12]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꿀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고후 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6. 지금은 심판으로 드려난 분명한 진리가 제시된 시대이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 따라서 진리대로 자신을 개혁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을 드릴 때이다.

[딤후 2:15]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고후 13:8]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마치는 말 : 2,300주야의 끝 곧 1844년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신 때로서 지상의 당신의 교회를 심판하여 바벨론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각 개인을, 드러낸 참된 진리로 초청하는 일로 심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기간이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속죄일은 구속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바로 이때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는 예표이다. 지금 우리는 엄숙한 때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크신 은혜를 간구하자.